

“영광·곡성 이끌 책임자는 나”... 막판 총력 유세전

각 당 후보, 주말·휴일 표심잡기 전력 ‘호남대전’...당 대표·지도부 지원유세 시장·터미널 등 구석구석 ‘한 표 호소’ 치열한 접전 속 16일 본투표에 ‘촉각’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영광·곡성 군수 재선거 사전투표가 40%대 투표율로 마무리된 가운데,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각 당 후보들이 마지막 주말 표심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영광지역 더불어민주당 장세일·조국혁신당 장현·진보당 이석하·무소속 오기원 군수 후보와 곡성지역 민주당 조상래·국민의힘 최봉의·혁신당 박웅두·무소속 이성로 후보가 오는 16일 재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막판 집중 유세에 나섰다. 이번 재선거는 지난 3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현지 지원 유세에 나선 야 3당 대표들의 총력전에 ‘호남대전’이라는 명칭까지 붙여졌다.

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이날 영광읍 단주리 회전교차로 아침 인사를 시작으로 영광군 11개 읍·면 전역을 순회하는 유세 활동을 벌였다. 교회, 성당, 원불교 교당을 찾아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한 데 이어 오후에는 영광읍 남천사거리에서 저녁 인사로 유세를 이어갔다.

앞서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9~11일 사흘간 영광에 머물며 “이번 선거에서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을 해 달라”고 지원 유세를 했다. 12일에는 주철현 전남도당위원장과 박지원 의원, 영광에서 한달살아하고 있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각개전투로 민심을 훑었다.

장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10·16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 지난 11일 영광 청소년문화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영광은 43.06%로 사전투표가 첫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다. 김양배 기자

나왔다. 이는 검증이 안 된 후보에겐 표를 줄 수 없다는 군민들의 표심이 작용한 것”이라며 “군의원과 도의원 경험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장세일을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혁신당 장현 후보는 조국 대표와 함께 이날 정오께 영광군청 사거리에서 유세차량 위에 올라 “영광군수 후보 중 가장 정당한 자에게 소중한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다. 거리 집중 유세 이후에는 ‘조국 대표와 커피 한잔 어떠세요’라는 열린 소통의 선거운동과 쌀값 안정·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논콩 5만 포대 구매 협약식’을 진행했다.

조국 대표는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를 치르는데 10억여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군민 복지 증진 등에 쓰여야 할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라며 “이제 영광에선 군수 선거를 다시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후보에게 자질이 있는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등 하나하나 따져달라”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진보당 이석하 후보도 이른 아침 생활체육대회 등반대회 참가자 인사를 시작으로 마지막 주말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일요일을 맞아 교회·교당을 찾아 신도들에게 한 표를 호소한 이 후보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영광읍 전역을 순회한 뒤 주말 선거운동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날부터 이 후보 지원을 위해 영광에 머물고 있는 김

재연 상임대표는 길거리 휴지줍기 봉사활동·농촌일손돕 등 바닷민심 잡기에 총력을 다했다.

이 후보는 “역대급 사전투표율에서 알 수 있듯이 영광군민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지자들에게 선거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정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무소속 오기원 후보도 이날 영광중앙교회 예배에 참석하거나 시장을 찾는 등 막판 표심잡기에 나섰다. 오 후보는 “당이 아닌 후보·공약에 투표해 달라”고 읍소했다.

곡성군수에 출마한 후보들도 주말·장날을 맞아 시장과 터미널 등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권향엽·전진숙 의원과 함께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 자신을 ‘새로운 변화 더 큰 곡성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며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했다. 권향엽 곡성군수 재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은 인기 가요 ‘네 박자’를 직접 열창하며 유세장 호응을 이끌어냈다. 조 후보는 “겸손한마음으로 지역의 일꾼이 되어 주민들을 챙기고 받들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프리미엄’을 강조한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시장 상인들과 악수하며 “힘 있는 여권 후보로서 곡성 예산 확보와 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힘을 쥐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 경제발전, 정치개혁, 곡성변화”를 약속했다.

혁신당 박웅두 후보도 오전 일찍 시장을 방문해 “이번에는 바꿔달라”며 유세전을 펼친 후 인근 옥교교회에서 교인들과 예배에 참석했다. 전날에는 조국 대표와 함께 옥과터미널에서 집중 유세전을 했다. 박 후보는 “곡성의 변화, 호남의 정치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군민들에게 공표한 ‘곡성행복지원금’도 기금을 활용해 꼭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소속 이성로 후보 역시 시장 상인들과 만나 변화와 새 인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운동원 30여명은 시장 입구에서 기호가 적힌 팻말 등을 들고 만만찮은 기세를 과시했다. 그는 “곡성 변화의 시작, 새 물결, 새 인물, 이성로를 지지해달라. 오직 곡성을 위해 잘 사는 곡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尹, 동남아 순방 마치고 귀국... ‘윤-한 독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5박6일간의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윤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산적인 국내 현안을 살피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화두는 한 대표와의 회동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이후 ‘독대’하기로 했다.

다만 배석자 포함 여부 등 구체적 형식

과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독대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 여사 문제, 의정갈등 해법에서 합의점을 찾고 당정 결속을 이룰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세계국제지수(WGBI) 편입과 수출 호조 지속 등 경제 성과를 민생 경기로 확산시키는 데 힘을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22대 국회 광주·전남지역 국감 막 오른다

오늘 나주서 한전 등 16개 기관 24일까지 시·도·교육청 등 대상

제22대 국회 광주와 전남지역 국감이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14일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에서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 등 5대 발전 자회사, 한전KDN·KPS·MCS 등 자회사, 전력거래소 등 1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한전 국감에서는 한전의 최대 쟁점인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 막대한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전의 자구노력 이행 여부 및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까지 나주에 머물며 관련 기관 현장 시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7일 오전 교육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오후에 전남대와 전남대병원 국감을 진행하고, 같은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에서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오후에는대전고법에서 광주고법·광주지법 국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전남도청에서 전남도·전남경찰청, 22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시·광주경찰청 국감을 연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광주국세청에서 광주국세청과 광주세관, 광주조달청, 호남통계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 본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지현 기자

공수처·검찰 국감... ‘김건희 청문회’ 2라운드

오늘 공수처·18일 서울중앙지검 채상병 사건 등 여·야 공방 전망

22대 국회 국정감사 2주차인 이번주에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국 검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어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총 79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번주는 14일 공수처, 17일 지방법원·검찰, 18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국감이 예정돼 있다.

공수처 국감에선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수사팀은 지난 3월 ‘윗선’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장관 약식 조사 이후로 본격적

인 윗선 소환에도 나서지 못한 상황이다.

사건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 단장을 비롯해 이 전 장관, 기관장인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명태군씨의 여론조사 비용 부당 의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공수처 수사 4부에 배당됐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증인에 포함됐다.

아울러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됐던 ‘공수처 무용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실시되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불기소 처분과 아직 수사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은 김 여사 ‘출장조사’ 의혹 관련

검찰총장 패싱 의혹,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선,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사건 관계인 다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집중 포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형사재판 사안 관련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 소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 특혜채용 의혹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양부남 “영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무”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암 등 전국 13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을·사진)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

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13곳으로 영암을 비롯해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이다.

양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